

2024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제2차
(速記録)

- 주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 일시 : 2024. 3. 28.(목) 14:00 ~ 15:27
- 장소 : 문화본부 4층 대회의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0, 센터프라자 808호

Tel) 02-537-0889 Fax) 02-738-0123



2024년 제2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 ◆ 일시 : 2024. 3. 28.(목) 14:00 ~ 15:27
- ◆ 장소 : 문화본부 대회의실(한국프레스센터 4층)
- ◆ 참석자
위원장 : 000
위 원 : 000, 000, 000, 000, 000, 000
배석자 : 000 과장, 000 팀장, 000 주무관
- ◆ 심의사항 (총 4건)
 -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3건)
 - ① [봉은사 선불당, 판전] 시왕전·향로전 증축
 - ② [봉은사 선불당] 지붕 보수 공사
 - ③ [봉은사 선불당, 판전] 야간경관 조명 설치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등(1건)
 - ④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관훈동 민씨 가옥]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주변 무대 관람석 그늘막 설치

(개의)

○ 000 과장

그러면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2차 회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4건이 있고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올라왔던 건 중에서 같은 건인데 허가기간을 도과해서 온 건이 3건이 있어서 아마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봉은사 선불당 하고 판전에 대해서 현상변경심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4/K03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2/39



(‘가’ 업체 입장)

○ '가' 업체1

안녕하십니까? 설계 용역을 맡은 금성건축 설계사무실 소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봉은사 전통사찰 보존사업계획이고요. 시왕전하고 향로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1차로 받았고요. 받았는데, 용역 기간을 약간 넘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심의를 받는 형태로 해서 지금 들어온 상태이고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심의를 받았던 내용이고 지금 보시면 최종 2023년 12월 30일까지인데 용역 기간을 현재 넘긴 상태입니다. 기존심의를 받은 내용이고 사업기간 연장사유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하고 시굴조사를 별도로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왕전 지하 쪽에 면적 산출하는 데, 그러니까 평면이라든지 그것은 바뀐 건 아닌데 저희가 면적 산출할 때 기둥 중심으로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벽체 중심으로, 지하 골조니까. 벽체 중심으로 뽑아야 하는데 그게 15㎡ 정도가 약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번에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추진경위를 보시면 2022년 12월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요. 2023년 2월부터 해서 2023년 8월까지 봉은역사공원 조성 계획결정을 저희가 심의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에 실시설계를 납품했고 2024년 1월에 시왕전 증축부지 내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2월에 시왕전 착공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경기고등학교하고 봉은사역 가운데에 현재 배치되어 있고요. 부지 내에 봉은사 선불당과 봉은사 판전이 현재 서울시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치가 되겠고요. 보시면 여기가 공원 지역하고 문화재보호구역하고 2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져 있는데 판전과 선불당이 있고 시왕전하고 향로전 위치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장전 뒤로 되겠고요.

단면계획을 보시면 지장전하고 지장전 바로 뒤에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여기가 한 7.5m 정도 기둥 중심으로 해서 떨어져 있는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선불당은 떨어져 있는 거리는 35.5m 정도 되고요. 판전하고 떨어진 거리는 131m 정도 됩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기존에 선불당과 지장전이 있고 지장전 뒷부분이 저희 대상 부지가 되겠고요. 판전하고 이것은 변경 후 도면입니다. 여기에 향로전이 보이고 향로전까지 판전 떨어진 거리는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4/K03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3/39



131m 정도 됩니다. 여기가 메인 뷰가 될 텐데, 대웅전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대웅전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지장전이 있고 이 뒷 공간이 건립부지 대상지이고 시왕전이 만약에 건립됐을 때 기단부처럼 보이는 부분하고 향로전이 뒤에 있습니다. 지장전 쪽에서 보시면 건물이 사람 시선 높이에서 보면 뒤의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봉은사 연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늘어난 것으로 하게 되면 지금 시왕전 같은 경우 2022년 8월 25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고 향로전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현재 시왕전에 관련된 시공사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준공시기까지 해서 포함한 거고요. 연면적을 보시면 지상층은 32.76, 지하층은 334.28, 총 367.04㎡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지하층은 rc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상층은 한식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지하1층, 지상 1층으로 되어 있고 최고 높이는 5.82m입니다. 시왕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시왕전은 봉은사 시왕도가 총 4점이 되어 있고 봉은사에서 1점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점은 동국대박물관, 1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되어 있습니다. 시왕도를 모시고, 여기가 생전예수재에 관련된, 지내기 위한 공간이 필요해서 봉은사 시왕전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로전은 봉은사 사적기 기록이 남아있고요. 문헌상 존재하는 향로전을 되살리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역대 조사들을 봉인하기 위한 현실적인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조사하다 이 향로전을 건립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봉은사 전체 조감도이고요. 대상 부지는 지장전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 조감도를 보시면 여기 지장전 뒤에 조금 떨어져 건물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중에 조감도가 보여질 거고요. 현황은 현재 지장전 뒷부분에 기존에 이렇게 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지 안에 저희 건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계획 현황을 보시면 판전하고 선불당이 있고 계획대상지로 현재 보실 수 있습니다. 떨어진 거리가 표기되어 있고요. 131m하고 그다음에 35m 선불당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계획대상지이고 저희가 현황 레벨에서부터 7.5m 정도 레벨의 향로전 바닥 높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약간 단을 줘서 건물이 이렇게 높게 보이지 않게 처리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층 모습이고 지하층은 토탈하게 되면 27m에 15m를 지금 들어내고 그다음에 건물을 안쪽에 비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층 모습이고요. 여기 향로전이 있고 향로전은 산책로 쪽에서 진입할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 모습이고요. 지하층에 시왕전을 모셔야 하는 부분들이 시왕전 모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 전시시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문화재 심의를 받으면서 시왕들을 어떻게 보존할까. 그다음에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내부의 환기라든지 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실내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하고 자연환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유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리 케이스로 해서, 전시 케이스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다 반영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현황 단면도이고요. 이게 계획 단면도입니다. 계획 단면도에 보시면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6.23 정도 됩니다. 총 7m, 토탈하면 15m 정도 되고요. 전체 높이가요.

그다음에 내부에서 실링고는 한 4,500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입구 부분은 여기가 한 2,700 정도 층고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단면도들 보시고 현재 시왕도가 배치되면 아마 이렇게 돼서 유리 케이스 안에 시왕도가 들어갈 거고 아무래도 습기에 문제가 되니까 여기 드라이 에어리어를 통해서 자연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때 한번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입면도고요. 입면도는 현재 기단부 쪽은, 시왕도 쪽은 화강석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위에는 한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 000 위원

위원장님, 이거 3건을 모두 다 듣고 하면 어떨까요?

○ 000 위원장

예, 그러죠.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4/K03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5/39



○ '가' 업체1

봉은사 선불당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은사 선불당은 이것도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받았는데, 이것도 현재 공사를 못 했어요. 여기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있다가 시기를 놓쳐서 다시 들어온 사안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받았던 내용이고 여기에서 심의에서 의견 내용이 뭐였었냐면 지붕 해체 시 현장 기술지도자문 하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증공 시 지붕 상세 수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해서 받은 내용들입니다. 사안의 목적은 노후화된 지붕, 와구토 탈락 및 기와와 흘러내림으로 인한 관람객, 신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약간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기와고르기와 균열된 학각 부분을 보수하고 문화재 경관의 회복 및 전통사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수 내용을 보시면 기와고르기가 160㎡ 정도 되고요. 용마루 해체 후 재설치가 19.33㎡, 내림마루 해체 후 재설치가 35.51㎡ 그다음에 학각벽 해체 및 재설치가 18㎡ 정도 됩니다. 풍장 및 와구토가 많이 탈락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을 보수하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2,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봉은사 판전하고 115m 정도 되는 거고요, 선불당은. 위치는 아까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사진을 보면 이게 1990년도 현황사진이고요. 이게 현재 사진입니다. 현재 사진을 보면 기와가 떨어질 것 같아서 낙하방지망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날씨가 풀렸기 때문에 공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면 와구토와 풍장 정도 여기가 지금 탈락되어 있는 와구토, 풍장 이런 부분들이 계속 탈락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와구토 배면 이렇게 풍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각 부분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균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열들을 보수하는 것들이 이번 보수 대상입니다. 기와고르기와 용마루 해체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도면화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와구토, 풍장이고요. 학각 균열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보시고 나머지 도면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000 과장

다음 건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 000 위원장

1번, 2번만 먼저 하시죠. 우선 1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죠.

○ 000 위원

1번에 2022년에 허가 시 자료를 보면 조건부 허가로 되어 있는데 당시 조건이 무엇이었는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가' 업체1

당시 조건이 뭐였냐면 유물 보관하는 것을 유리 케이스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실내환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있는 게 장애인 이동동선에 관련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이동동선에 대해서 지장전을 통해서 일직선으로 와서 최소한 더 단순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까지 해서 현재 받은 내용입니다.

○ 000 위원

지하에 관람객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 '가' 업체1

지하에 관람객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지장전하고 출입구 사이에 여유공간이 너무 없는 것 아니에요?

○ '가' 업체1

그때도 했는데 계속 뒤로 무르게 되면 뒤에 계속 산을 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도,

○ 000 위원

아니, 산을 깔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몇 m 여유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 '가' 업체1

지금 7.5m로 해서 기존에 그 얘기도 나와서 그래서 2.5m인가 뒤로 미룬



상태입니다.

○ 000 위원

29페이지 도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놓고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전하고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 지금 사람 동선이 어떻게 돼요? 저기를 지하출입구로 들어가는 관람객의 동선이.

○ '가' 업체1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 뒤로 해서 이렇게 진입로를,

○ 000 위원

그러니까 지장전 전각 그 데크를 지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 '가' 업체1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그게 돼요?

○ '가' 업체1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램프라든지, 현재 장애인 램프를 별도로 추가로 더 설치해서 여기 통해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이 도면에서는 지금 장애인 램프가 안 나오지 않아요?

○ '가' 업체1

이쪽에 별도로 장애인 램프 올라가는 게 또 따로 있고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장전 전각을 까고 올라가야 하는 거잖아요. 전각 옆에 데크를 까고 올라가야 하는 거잖아요.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 '가' 업체1

현재 슬로프가 되어 있어서 약간만 더 추가로 옆에 놔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현재 높이가 900 정도 단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900 정도 단 차이 나는 부분만 이렇게 장애인 램프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여기에 산책로가 또 있거든요.

○ 000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가' 업체1

산책로도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처음에는 조금 더 붙었어요. 붙었는데 그래서 2 점(.) 몇 m를 더 밀고 이걸 그냥 해 주는 걸로 해서.

○ 000 위원

그 정도 공간 갖고 관람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앞에 오픈공간이 확보됐다고 얘기, 밀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지하공간은 어차피 한옥 구조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그걸 좀 손을 봐서라도 앞에 오픈공간을 만들든지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었나. 그런데 왔던 거기 때문에 참 얘기하기가 껄끄럽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쪽 전각에 그 토대 위를 지나서 이쪽 전각을 들어가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그게 과연 합리적인 배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거는 조금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

하나 더 여쭙봐도 될까요?

○ '가' 업체1

네.

○ 000 위원

저희 일정이 좀 연장된 사유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예산은 허가 당시부터 총사업비가 이렇게 나온 건지. 지금 일정이 지연되면서 늘



어나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 '가' 업체1

예산이요?

○ 000 위원

예. 총사업비요.

○ '가' 업체1

총사업비는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일정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별도로 추가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 000 위원

그거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고려는 안 하셔도 되는 것 정도로 넉넉하게 되어 있는 거군요.

○ '가' 업체1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에스컬레이션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없습니다.

○ 000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쭙자면 여기 10년간 보수이력으로 말씀하신 매화당 신축 같은 경우는 이게 35억 원이잖아요, 신축을 하는 데. 그런데 저희 것은 복원이랑 증축인데 38억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서 되게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여쭙았던 거거든요.

○ '가' 업체1

여기가 현재 지하에 암도 있고 지하 공사 여기가 환기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층고도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높거든요.

○ 000 위원

네. 이 금액이 지난번에 저희 처음에 심의받으실 때 있던 금액 그대로라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4/K03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10/39



는 말씀이시죠?

○ '가' 업체1

네, 맞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 000 위원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1번 없으시면 2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나요? 선불당은 기와를 그전에 언제 손봤죠, 지붕은?

○ '가' 업체1

기와 손본 것은 공사, 그전에 했던 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래요? 본래 수리공사라는 것은 그전의 이력을 조사하셔야 하는데.

○ '가' 업체1

원래 설계했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 감리 가서 제가 대신 PT를 하는 상황입니다.

○ 000 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 옛날에 했던 것하고. 단독이 아니고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에선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 '가' 업체1

실질적으로 가서 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손상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 000 위원장

수리보고서는 작성하게 되어 있죠?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4/K03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11/39



○ '가' 업체1

네, 수리보고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장

누가 작성합니까?

○ '가' 업체1

수리보고서는 시공사에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공사에서도 별도로 맡길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고요?

○ '가' 업체1

그쪽에서 같이 포함되어 현재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시공 예산?

○ '가' 업체1

네. 심의에서 아예 이렇게 수리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으니 그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000 위원장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업체 퇴장)

○ 000 위원

2년 전에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장전이 있는데 시왕전을 또 짓고 거기다 지장전을 보수해서 시왕전을 모시면 될 것 같은데 검사 해서 향로전까지 지어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 000 위원

이게 전의 위원회고 지금 위원회도 바뀌었죠. 사실 냉정하게 바뀌었고 전에 내줬었지만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서 이게 달라졌다고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평면은 입구가 폭이 1m도 안 나오는 걸로 보여요, 거의. 그러니까 건물이 계단이 있으면 옆에는 접근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이런 식의 관람, 이게 관람공간이 되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일반건축물이면 관람집회시설이 되면 이거는 절대 이렇게는 허가가 안 납니다. 이것은 그 부분을 뒤로 미뤄서 지형을 조금 건드리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그런 정도까지 검토가 되어야 하는 거지, 전면이 없는, 공간이 없는 계획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일반건축물 같으면 관람집회시설 되면 저거는 안전에 바로 걸려요.

○ 000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진입에 대한 거는 전혀...

○ 000 위원

전혀. 도면에 애네가 표현을 안 해요. 지금 단면도 좀 보고 싶은데 도면에 표현도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 000 위원장

몇 대 몇이라는 게 표시가 안 되어 있냐요, 기울기가?

○ 000 위원

기울기는 당연히 잘 모르겠고요. 폭은 이 스케일도 제대로 안 보여주고 있어요.

○ 000 위원장

1.2m라고 되어 있는데요.

○ 000 위원

어느 부분에 있죠?

○ 000 위원장



도면에. 그 경사로 폭이 1.2m. 1,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 000 위원

이 계단 이게 1.2m요?

○ 000 위원장

아니요. 경사로 오른쪽에.

○ 000 위원

이거요?

○ 000 위원장

그 위에.

○ 000 위원

이거요?

○ 000 위원장

예, 예.

○ 000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이게 기둥이고 이거에 토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로 가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돼요.

○ 000 위원

그렇죠.

○ 000 위원장

그 사이로, 위로 가는 것 아닌가요?

○ 000 위원

어디로 가요? 진입이 이 면에서는 여기로 와서 여기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한국 컴퓨터 속기 사무소

A24/K03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14/39



- 000 위원장
아니, 위 같은데요.
- 000 위원
어느 위로요?
- 000 위원장
앞에 있는 건물. 지장전에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그러면 애하고 애하고 여기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만큼.
- 000 위원장
여기가 보니까,
- 000 위원
레벨을 맞췄다?
- 000 위원
맞췄다. 레벨을 보기는 했더라고요.
- 000 위원
레벨을 맞췄는데 타공 판석으로 했어요, 그거를.
- 000 위원장
레벨을 맞췄겠죠.
- 000 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 들어가는데 ‘이 건물 토대를 주진입로로 써라.’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 000 위원장



예. 보니까 그렇게 해놨네요.

○ 000 위원

저거는 같은 건물도 아니죠, 냉정하게는.

○ 000 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레벨 맞추려고 타공 판석을 집어넣었어요.

○ 000 위원장

타공 판석은 장애인 그거 같은데요.

○ 000 위원

저는 도면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건축 공부는 했지만 지금 건축과 교수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봐도 이상해요, 이거는.

○ 000 위원장

도면이 좀 이상한 게 사실은 앞에 있는 건물에서 접근하게 되면 전체를 다 보여줘야 하거든요.

○ 000 위원

그게 정상이죠?

○ 000 위원장

예.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보니까 연결돼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 000 위원

이게 관람시설이 되면 관람객들 동선이나 관리 동선이나 이런 게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 000 위원장

어거지로 넣었네.

한국 컴퓨터 속기 사무소

A24/K03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16/39



○ 000 위원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제작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라고 그럴까요? 그래도 되나요?
저번에 해줬다고 그래서 이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 000 과장

그때도 아마 나왔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 000 위원

문제제기 했을 거예요.

○ 000 과장

예. 그때도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완을 한 것인데.

○ 000 위원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거죠.

○ 000 위원장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 000 과장

저희가 그러면 건축 관련해서는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검토를 받게 하고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왕전, 향로전 관련해서
는 조건부로 그렇게 피난 규정 같은 것을 건축법상 맞는 부분을 확인하
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000 위원

또 하나가 배수로예요. 배수로 어떻게 처리하죠? 그 주위에 건물을 세우
면서 만들어지는 그 부분을 앞에 배수로에서 다 해결할 수 있냐 이거에
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기에 그런 건 전혀 없는데요. 설계사무소에서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 000 과장

이 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문제는 한번 볼 필요는 있고 그리고 레벨 문제하고 배수로 문제가 얽여있는데 이 건은 저희가 문화재 위원님이 가서 한번 보고 나서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세부설계 내용을 보고 나서 허가를 하는 것으로 조건부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요? 전에 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행정 신뢰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정도 체크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000 위원

저는 설명만 받으면 돼요.

○ 000 과장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 한 분이 같이 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시죠. 그러면 어떤 분 가지겠습니까?

○ 000 위원

건축 잘하시는 분들이 가셔야죠.

○ 000 위원

이의제기를 하셨으니까. 이의제기를 하신 분이 가셔야죠.

○ 000 위원

아니, 저는 건축이 아닙니다. 여기 건축으로 온 건 아닙니다. 저는 도시계획하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디테일은 안 보는데 이걸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봉은사를 동네에 살다 보니까 좀 가봐서.

○ 000 위원장

그러면 두 분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가서 한번 봐주세요.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잠깐만요. 현장 지금 포크레인 있는 상태에서 가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 담당자는 상세도면을 갖고 오라고 해서 저하고 000 교수님한테 보내서 저희가 보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좀 보고요.

○ 000 위원

네,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안전에 관한 문제만 신경써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 000 과장

그러면 상세도면을 한번 보고 안전이나 레벨, 배수로를 보시는 것으로 조건을 걸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불당 지붕보수 건은 어떻게 하실까요?

○ 000 위원장

그건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단순한 건지.

○ 000 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결로 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야간 경관조명 작년에 했던 건인데 이것도 기간이 도과됐습니다. 그것도 다시 들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나’ 업체 입장)

○ ‘나’ 업체1

안녕하세요. 봉은사 야간 경관조명 정비사업 현상변경심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2023년도에 기허가 받은 사업으로 여러 행정절차상의 이유로 기한이 늦어져서 현상변경허가를 재신청한 상황입니다.

○ 000 과장

죄송한데, 이걸 위원님들이 작년에 두 번이나 설명을 들으셔서 그때와 변경된 사항만 있으시면 그 부분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4/K03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19/39



○ '나' 업체1

사실 저희 두 번째 허가신청 받으면서 반영된 부분이 거의 그대로 실려있고요.

○ 000 과장

조건부로 했던 그 부분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거잖아요.

○ 000 위원

작년에 그때 저희 있었어요. 뭐를 어떻게 하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요구한 게 어떻게 됐는지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 '나' 업체1

저희가 지금 세 번째 현상변경심의 상황이라. 잠깐만요. 상위계획검토에서도,

○ 000 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시고요. 고치셨네요.

○ '나' 업체1

네. 말씀 듣고 고쳤습니다. 거의 그대로 반영해서 현황과 계획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구간별로 반영을 했는데 사실 말씀 중에 묘사채 조명에 시간 반영한 거랑 뒤에 영상의 길 쪽에 있는 조명이,

○ 000 위원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거 뭐를 하라는 것, 어떻게 보완하라는 것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없어요?

○ '나' 업체1

작년에 두 번째 현상변경심의 때 그것을 정리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다 통과가 됐는데 단순히 이번에 행정절차상의 기간이 늘어져서 다시 받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 두 번째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특별한 거 없네요. 알겠습니다.

○ 000 과장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업체 퇴장)

○ 000 과장

이게 원래 저기서 챙겨서 사실 행정적으로 공기변경을 신청만 하면 되는 건인데,

○ 000 위원

그걸 안 한 거잖아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에 조건을 이런 것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해서 다시 했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다시 할 때는 제가 안 왔고 처음에 할 때는 있었고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 000 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본인들이 행정적 미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 000 위원

안 되면 완전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절차상 다시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군요.

○ 000 과장

다시 받아야 합니다. 원래 공기변경요청을 하면 실무적으로 처리를 해 줘



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안 한 거예요.

○ 000 위원
3개 다?

○ 000 과장
3개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 000 위원
첫 번째도 그렇게 하면 그냥 통과되는 건데.

○ 000 위원
아니, 세 번째 것도 그래요?

○ 000 과장
세 번째 것도 그렇습니다.

○ 000 위원
이건 뭐 정리하시죠.

○ 000 위원장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네요.

○ 000 과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결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안건입니다. 이거는 남산골한옥마을에 있는 무대가 있고 그다음에 객석인데, 객석 위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 000 위원
서울시가 하는 거네요?

○ 000 과장
네. 이건 서울시가 관리합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4/K03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22/39

Email : sokgisa88@daum.net



(‘다’ 업체 입장)

○ ‘다’ 업체1

천우각 무대 관람석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000 위원

발표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여쭙봐도 될까요?

○ ‘다’ 업체1

저는 조경기술사이면서 조경 설계하는 용역회사이고 여기는 발주처인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 ‘다’ 업체2

저는 문화재관리과 직원입니다.

○ ‘다’ 업체1

천우각이 남산골 한옥마을에 있는, 충무로역에서 들어와서 있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서울시 민속문화재가 있고 옥인동부터 율탁영 재실 이렇게 가옥들이 옮겨와서 남산골을 재현해 놓은 부분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고 천우각 무대가 있고 광장이 있는 부분인데 이 대상지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남산 제모습 찾기 이후에 현재 남산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문화재이고 그다음에 보호구역으로 파란색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천우각이 있고 대상지,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건물은 문화재 4동 있고 그다음에 토지가 있는 부분이 한 1,300.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6만 정도 되는 지정면적에서 7,934㎡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에 올린 내용은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구역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한 그늘막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설계비를 포함해서 1억 2,000 정도니까 실제적인 공사비는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천우각이라는 한옥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무대가 있습니다. 8m에 13.8m이고 스탠드로 되



어 있는 부분이 가로 21m에 8m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스탠드에서 천우각을 바라본 부분이고 2번 부분을 보면 옮겨진 민속 자리에 문화재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여기가 북쪽이고 남쪽입니다. 남산을 바라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 무대에서 보면 남산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화재가 보이면서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스탠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탠드에서 낸 부분이고 스탠드에서 천우각 쪽을, 북쪽을 바라보는 경관이 6번입니다. 설치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관람객이 지금 여기 보시면 스탠드에서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면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특히 봄, 가을에도 많고 특히 태권도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사 시 날씨에 따라서 그늘이 없다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늘도 만들면서 우천 시 대피시설로 활용한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늘막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주변을 현재 보면 마당 입구에서, 충무로 입구에서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문화재 부분이 보이고 초가가 보이고 끝에 보면 관람석이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후에 설치를 하면 과거에 이런 부산 수영에 있는 사적봉이라든지 설치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초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기와보다는 이게 중량감이라든지 사업비도 그렇고 전체적인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광장에 있을 때 통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인조 기와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문화재인지 흔재스러운 부분도 있고 비용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도드라지지 않고 문화재보다도 도드라지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 부분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양각과 부각 그리고 설치했을 때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면서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행사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행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어디에 있냐면 상단에 설치되는데 시야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각을 열어야 한다는 부분.

위에서 보면 부각으로 내려다 보는 부분인데도 처마가 위에서 보면 높이, 뒤에 보조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위에 들려있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우수가 물이 떨어지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일 때는 형태는 이런 평지붕 형태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디자



인은 남산골마을과 고려되는 부분으로 했고 형태는 방지에 전체적으로 사각형태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각형태의 지붕을 적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재에 대해서는 전체에 목재구조와 이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었고 현재에 보면 이렇게 관람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이렇게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를 결정하는데 제일 상단 부분에서 2.1m가 사람이 섰을 때 높이에서 폴짝 뛰었을 때 닿을 수 있는 높이가 2.1m입니다. 이 높이로 해서 수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에 떨어지는 방향으로 잡으니까 이 높이가 결정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물매를 이렇게 잡으면 앞애가 시야가 가려져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야 분석도 저희들이 다 해보고 이 관람석에서 봤을 때 이게 가려지지 않고 카메라도 여기서 설치를 해서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광장에서 만들면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이거는 마당에서 문화재를 쳐다보면서 맞춘 부분이고요.

문화재의 선하고 높이하고의 비례를 맞춰본 것이고 기존에 여기에 이렇게 그늘집이 있습니다. 그것과의 비례도 생각해보면서 방향도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멀리 가서 이 지붕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을 맞춰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좀 가까이 근접해서 보면 이 형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늘에 있어서도 보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쪽이 남쪽입니다. 이쪽이 북쪽이고요. 그러면 해가 이렇게 들죠. 하지가 몇 도냐면 해가 남중이 됐을 때 62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추분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39도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동지가 되면 이렇게 길게 15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남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그늘이 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다 고려를 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여기서 보면 스카이라인을 분석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보다 높지 않으면서도 스카이라인을 해치지 않는 면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자재, 스카이라인, 기능성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높이를 고려해서 이렇게 보았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쪽 문화재가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스카이라인으로 보일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이게 다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장

질문해 주시죠. 인조이영 이라는 게 재료가 됩니까?

○ '다' 업체1

비닐계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렇고 시골 마을에 초가집이 많아서 봤는데, 경기도 광명에 가면 광명동굴이 있습니다. 부산 수영에는 사실 못 가봤고.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것을 했는데 이렇게 봐야 표가 날 정도로 거의 똑같아 보였고 반사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니다.

○ 000 위원장

인조이영을 잇는 이유가 있나요?

○ '다' 업체1

이게 실제 집이영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한 번씩 같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리하시는 서울시 공무원이 와있지만요. 위험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게 부식이 되면서 위에서 벌레들이 생겨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인조이영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구분을 해 보니까 인조이영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았었습니다.

○ 000 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고 왜 저것을 이영 모양으로 해야 하는지, 디자인을 그렇게 결정하셨는지.

○ '다' 업체1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른, 일단은 해도 가리고 여러 가지를 가리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카보네이트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현대적인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기와지붕하고 이런 것들하고 조화를 못 맞추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 000 위원장

우리 전통적으로 차일이 있잖아요. 그 디자인은,

한국 컴퓨터 속기 사무소



○ '다' 업체1

막구조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000 위원장

그렇죠. 왜 그거는 고려를 하지 않으셨죠?

○ '다' 업체1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조화성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못 맞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되게 기하학적인 선이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요.

○ 000 위원장

그런데 디자인이 굉장히 주관적인데.

○ '다' 업체1

예,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의정부도 설계검토할 때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늘막할 때.

○ '다' 업체1

막구조를 하려면 막구조 자체에서, 저희들은 조경 이런 시설설계를 많이 하는 회사니까. 기본적으로 막구조에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턴버클로 당겨주고 여러 가지 구조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쪽 전체가 한옥마을이라는 구조에 들어가 있으니깐 거기에다 맞추기는 어려워서, 처음에는 기와 형태도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것은 실제 기와를 하게 되면 비용 문제를,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것을 못 맞출 것 같고 그래서 집 형태의 이영을 가지고 저희들이 방향을 맞췄습니다.

○ 000 위원장

남산에 국궁터가 있잖아요. 활 터.



○ '다' 업체1

예. 알고 있습니다. 남산에 국립수목원 있는 데.

○ 000 위원장

거기는 차일 형태로 되어 있던데요. 거기는 디자인이 막구조로 되어있던데요. 그거 보셨습니까?

○ '다' 업체1

보기는 봤는데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 000 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시뮬레이션 3 좀 보여주시겠어요? 전후, 앞쪽에 상하의 시야 확보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사실 관람석의 핵심이 관람이잖아요. 기둥이 엄청 많이 박히잖아요. 그러면 뒤쪽에 앉은 분 같은 경우 시야가 어느 정도 가리는지 체크는 하셨어요?

○ '다' 업체1

문화재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PPT가 있었습시다만 공간이 여기 전체가 한 20m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파고라가 한 4.5m 정도, 5m 정도 나오니까.

○ 000 위원

아니, 일반 파고라 비교하시면, 이걸 관람석의 그늘막을 만드시는 구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게 최우선이어야죠. 그런데 지금 기둥이 굉장히 많아요. 맨 가장자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4개나 있거든요, 4단이나. 그리고 중간에 또 있고. 여기 뒤에 앉으면 이게 다 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관람석 자체에서 그거의 영향을 받는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 000 위원
맞습니다.

○ 000 위원
이게 본래의 목적이 관람을 더 용이하게 편하게 좋은 환경에서 해 주자는 얘기인데 관람에 지장을 주는 요소가 너무 많아지면 그늘막을 안 하니만 못 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관람석의 취지를 생각하면. 그런 관점에서 기둥을 좀,

○ '다' 업체1
하나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좀 많이 솟아내는 것이, 그러니까 저 좌석들이 어느 정도 지장을 받는지 검토를 하셔서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그 구조는 아니야.' 이런 게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다' 업체1
일단 목재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조가 거의 4.5m, 5m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는 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이 되면 이 보에 해당되는 기둥의 길이하고 목재하고 구조를 계산해 보니까 못 넘기겠던데요. 바람을 잡아주는 부분과 그거하고 이런 것 때문에.

○ 000 위원장
목재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 '다' 업체1
전체적으로 목재하고 이거하고 어울려야, 지붕하고 어울려야 어울리지, 그렇지 않으면 조화를 맞추기가 어렵겠다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하나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자꾸 지금 형태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구조적인 안정성 해서 중간에 이렇게 딱딱 기둥 놓은 것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안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접근방법일 것 같고요. 먼저 하기 전에 형태나 그리고 관람석에서 뷰 좋고 그늘막으로써 형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몇 가지 가지고서 그다음에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면 좋은데, 이거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설명을 하니까 저희는 주입식에 의한 형태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 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막구조도 말씀하셨듯이 기둥 앞에 전부 없이 관람을 위한 막구조 방식으로, 서스펜션 구조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 대안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논하기에는 참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이쪽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하면 좋은데 과정이 있다면, 그런 작업과정이 있다면 여기에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하면 되는데 결정된 거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하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 '다' 업체1

과정이 있었죠. 시뮬레이션도 그렇고,

○ 000 위원

그러면 보여주셔야죠.

○ '다' 업체1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회에 올릴 때 줄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다 보니까 그랬던 것이지, 보충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여러 번의 자료가 있었으니까 더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000 위원장

예를 들면 그늘막이잖아요. 그늘막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기둥이 그늘이 어떻게 지는지 그 시뮬레이션도 가지고 오셔서 보여드려야지.

○ '다' 업체1

그것도 있었습니다.

○ 000 위원장

한국 컴퓨터 속 기 사무 소

A24/K03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30/39



그냥 말로 설명하시니까 모르잖아요. 춘분 때 어떻게 되고 추분 때 어떻게 되는지.

○ '다' 업체1

보조자료가 다 있었습니다. 제출하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즉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춘분, 추분부터 그늘 지는 것까지 분석을 다 했습니다.

○ 000 위원

시뮬레이션을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대안을 몇 개 가지고 여기서 지금 봤었을 때 9번에 측면도, 단면 나온 거에서 높이가 아예 3.9m 딱 정해놓고 지붕 가장 높은 각도로 해놓고 나서 거기서 시뮬레이션 해봐야 별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5m, 5m 이 비유가 가장 좋을 수도 있는데 3.9m 해놓고 거기서 일조가 어떻게 거기에 맞는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이래봐야 시뮬레이션에 대한 효과는 없죠. 변수가 많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000 위원

제가 잘 모르지만 눈에 하나 보이는 게 관광객이 대부분 오잖아요. 높이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오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제일 높은 층에 그 의자에 섰을 때 2m 10은 사실은 외국인 기준으로 보면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외국인 남자들이나 이런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그 높이도 너무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다' 업체1

답변을 드리자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배리어 프리라고 해서 미국이든지 국내에든지 그 기준에 보면 최소 기준을 2.1m에 두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높이니까 이 기둥이 너무 길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게 너무 우람해보였어요.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그래서 했던 건데, 추후에 시뮬레이션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 000 위원

일단 설명은 됐습니다.



- 000 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끼리 의논하겠습니다.
- 000 과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000 위원
아니요. 저도 몇 가지 질문 있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기둥이 네 번째 스텝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세 사람은,
- 000 위원
그늘 진대요. 시뮬레이션 하셨다고.
- 000 위원
시뮬레이션 하셨는데,
- 000 위원
그늘이, 남쪽에서 지나니까.
- 000 위원
시뮬레이션 하셨다고.
- 000 위원
그늘이 진다는 얘기죠.
- 000 위원
만약에 비가 계속, 비올 때는 절대 안 하나요? 비올 때는 저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건가요?
- 000 위원
그늘만 필요하기 때문에.



- 000 위원
6쪽 한번 올려주세요. 그 말씀은 잠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6쪽.
- 000 위원
서울시에서 그늘만 주신 건가요? 그늘만 해결해라?
- '다' 업체1
아니, 잠깐만요. 몇 페이지요?
- 000 위원
여기요.
- 000 위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우각 앞에 무대가 비올 때는 공연이 안 되는 거죠. 비가 올 때는 위험하고, 저런 거 위험한데 비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용도는 아주 좋아.
- 000 과장
정말 어려울 때는.
- 000 위원
그렇죠?
- 000 위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씩 엮는 이 영을 계산하기 위해서 약간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겨울에 강설은 어떻게 하죠? 눈 오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 '다' 업체1
눈 오는 것 때문에 뒤로 기울임을 각도를 줬습니다.
- 000 위원
그 정도 가지고 강설을 해결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어렵다, 그 각도가.



그다음에 목재 200 바이 200으로 계단하고 조인트를 하셨는데 그 조인트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도면에 잘 안 보여서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9페이지요.

○ '다' 업체1

이게 현장에 가보면 콘크리트를 밑으로 다 써서 그다음에 여기에 돌을 장대석을 가지고 크게 고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여기서 브라켓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 000 위원

장대석이요?

○ '다' 업체1

이게 콘크리트고요. 판석이 아니고 이 부분이 장대석을 가지고 목재를 다 이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브라켓으로 하는 구조로 잡았습니다.

○ 000 위원

장대석하기에는 좀 과하지 않나요?

○ '다' 업체1

장대석은 원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미 있는 부분에다가.

○ 000 위원장

특별한 거 없으시면 퇴장해 주시고 저희들끼리 결론을 맺는 게 좋겠습니다.

○ 000 과장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업체 퇴장)

○ 000 위원

그런데 이게 항상 설치를 해놔야 하는 건가요?

○ 000 위원장

그렇죠.

○ 000 위원

접었다, 폼다 할 수는 없나요?

○ 000 위원장

구조가 너무 크니까.

○ 000 위원

구조물이 너무 커서?

○ 000 위원장

예. 접었다, 폼다 하기에는 21m나 되잖아요. 거기는 좀 그렇겠죠.

○ 000 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네가 아이디어를 낸 거면 고민해 봐야죠. 자기네가 요구했을 수도 있죠.

○ 000 위원장

제 생각은 이걸 저분이 설계할 때 과정을 ‘이영을 올려야 돼.’ 이게 픽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000 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사실 저렇게 이영을 올리면 굉장히 변수가 줄어들고 저것을 목재로 해야

한국 컴퓨터 속 기 사무 소

A24/K03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35/39

Email : sokgisa88@daum.net



되고 하면 지금 현대식 좋은 재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왜 옛날 것하고 비슷하게 해서 저렇게 구조에 제한을 받고 높이에 제한을 받고 기능에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 000 위원

문화재 경관에 대한 오해인 것 같아요. 문화재 경관은 무조건 이영이나 기와나 나무로 해야지만 된다는데 오히려 저게 오해가 되잖아요. 거꾸로 보면 더 안 좋죠. 확실히 새로운 게 낫지, 차별된 게.

○ 000 위원장

다른 나라 예를 보면 미국이 1966년까지 내셔널파크에 옛날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1966년 프로젝트라고 해서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안 하겠다. 현대식 건물로 하겠다.’ 해서 그때부터는 안 해요. 그래서 그게 다시 문화재가 되고, 유명건축가들이 해서. 그런데 저기는 ‘옛날 건물로 해야 돼.’ 하는 고정관념이 지금 딱 되어 있어요. 저기는 기능만 맞으면 되잖아요. 햇빛을 잘 차단하면 되는데 왜 저걸 이영으로 해야 하느냐, 또 왜 목구조로 해야 하느냐. 목구조로 하면 기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높이에 제한을 두고요.

○ 000 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 000 위원장

그리고 또 보수가 저게 보수 주기가 짧아요. 유지관리하는 데 돈도 많이 들고. 그럴 필요가 없죠.

○ 000 위원

저렇게 요구한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 000 위원장

제가 남산에 국궁관 있잖아요. 거기 가면 막구조로 잘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막구조로 하시면 옛날 차일 맛이 나요. 그리고 스판으로 훨씬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철골로 하면.



- 000 위원
그리고 앞에 기둥 필요 없고요.
- 000 위원장
필요 없어요. 20m 동그랗게 하면 기둥 필요 없어요.
- 000 과장
그러시면 이게 사실 여름이 되기 전에 설치하는 게 좋은 거긴 한데 4월,
- 000 위원장
막구조로 하시면 태풍이 오면 막을 걷을 수도 있어요.
- 000 과장
4월 심의에 한번 여러 시뮬레이션을 보시는 정도를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 000 위원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 000 위원
지금 글을 쓰셔야 하잖아요. 어떻게 쓰실 거예요?
- 000 위원
본래의 기능을 조화롭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 000 위원장
기능에 충실하라고 하면 돼요.
- 000 위원
기능에 충실해라.



- 000 위원
그렇죠. 기능에 충실하라고. 그러면 목구조가 안 되는 거죠.
- 000 위원장
목구조가 될 수가 없지.
- 000 과장
'기능에 충실하고 어울리는 방법을 찾아라.' 이 정도로 하시는 건.
- 000 위원
그렇죠. 다른 대안.
- 000 위원
어울린다고 하면 또 거기에 자꾸 들어가니까.
- 000 위원
일단 이영, 비이영은 구별 됩니다. 제가 저번에 봤는데 어쩔 수 없이 반짝 거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다 찾아내. 자세히 보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관리, 거기 또 이제 그거 생기잖아요. 까맣게, 비닐이니까.
- 000 위원장
기본적으로 요새 문화재청에서는 새로운 시설 하면 문화재로 오해 안 받게 해요. 전혀 다른 구조로 해요.
- 000 위원
오해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 000 위원장
그리고 저 구조는 태풍이 불면 사고 나요.
- 000 과장
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000 위원
걸을 수 있는 거 좋잖아요.
 - 000 위원장
예. 막구조로 하면 걷어버리면 돼요.
 - 000 위원
비 오거나 할 때 걷어버리고 필요할 때만 쓰고.
 - 000 위원장
강한 태풍이 오면 막을 걷어버리면 돼요.
 - 000 과장
알겠습니다. 4월까지 해서라도 하면 공사기간이 사실 길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단순하기 때문에.
 - 000 위원
보류 하시자고요. 아까도 굉장히 세계, 엄격하게 하자고 그러셔서.
 - 000 위원
부결하면 저희는 심하면 5년간 다시 오지도 못해요. 보류로.
 - 000 과장
보류로 하시고 기능에 충실한 부분으로 한번 보시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기능에 충실하고 문화재로 오해하지 않는 구조.
 - 000 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로 오해하지 않는 구조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달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산회)

